

梅溪 李漢雨의 시문학 일고

김새미오*

차례

- I. 들어가며
- II. 생애와 시대인식
- III. 梅溪의 詩 世界
 - 1. 科擧의 落榜과 葛藤
 - 2. 修身意志와 現實觀照
 - 3. 濟州自然의 韻文化
- IV. 나오면서

I. 들어가며

본고는 제주도 신촌에 거주했던 梅溪 李漢雨(1823:순조23~1881:고종18)의 시 세계 규명을 목적으로 한다. 매계가 살았던 19세기 조선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격변기였다. 경직된 지도층으로 인해 사회는 피폐해졌고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농민들의 항거가 이어졌으며, 밖으로 서구 열강들이 동양 진출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런 시대에 매계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삶의 의지를 표명하고 과거에 도전한다. 허나 과거에 합격하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

* 성균관대 대학원 박사과정.

후 독서와 수양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의 시문집으로는 『梅溪先生文集』이 전한다. 원본은 확인되지 않고 복사본이 전하는데 오언절구, 오언율시, 오언고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영주 십경시, 만가, 산문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¹⁾ 이 밖에 두 종의 필사본이 있지만, 『梅溪先生文集』이 가장 선본이기에 이것을 텍스트로 한다.

매계는 당시 제주사회에서 시에 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秋史와의 교유도 있었다.²⁾ 김석익의 『心齋集』에서는 시에서는 이한우를 글씨로는朴癸詹을 난으로는姜道渾을 들고 있어³⁾ 그가 시에 능통했음을 알게 한다. 安達三, 金義正, 李啓徵, 高永昕과 같은 많은 제자를 배출했던⁴⁾ 당시 제주 사회의 사표였다. 그의 제자였던 安達三, 李啓徵은 후일 蘆沙 奇正鎭 문하생으로⁵⁾ 金義正은 勉庵 崔益鉉 유배시에 그의 문인⁶⁾이 되었다. 또 『心齋集』의 「破閑錄」에서는 제주 문인들의 내력을 서술하고 있는데 매계는 물론 당시 매계와 교유했던 吳泰稷, 金龍徵과 제자인 安達三, 金義正까지 기록되어 있다.⁷⁾ 이러한 점들은 제주 문학사에 있어 매계의 위치를 생

- 1) 문집의 구성은 五言絶句 12제 12수, 五言律詩 6제 6수, 五言古詩 1제 1수, 七言絶句 49제 49수, 七言律詩 67제 70수, 瀛洲十景詩 11제 11수, 輓歌 : 五言絶句 1제 1수, 五言律詩 3제 3수, 七言絶句 7제 9수, 七言律詩 14제 14수, (매계시 94제 99수, 다른 사람 시 60제 60수) 散文 15편으로 되어 있다. 이 문집은 『梅溪先生文集』이라는 이름으로 1998년에 김영길이가 번역해서 제주문화에서 출판했다.
- 2) 金錫翼, 「耽羅人物考」, 『心齋集』(濟州文化, 1990), 427면. : 李漢震, 號梅溪, 師事金秋史正喜, 博學能詩, 爲時宗主.
- 3) 金錫翼, 「破閑錄」, 『心齋集』(濟州文化, 1990), 320면. : 金正喜, 號秋史, 又號阮堂, 慶州人, 文科官至刑曹參判. 憲宗朝, 安置大靜縣, 後學多從之遊. 詩如李漢震, 書如朴癸詹, 蘭如姜道渾, 皆自公範疇中出, 又有姜琦爽, 李基肇, 金九五, 一時知名之士, 多不可記.
- 4) 「梅溪先生遺蹟碑」: 本州名碩如, 小栢安達三, 二樂李啓徵, 海隱金義正, 石湖高永昕, 諸賢亦皆出於門下.
- 5) 金錫翼, 「耽羅人物考」, 『心齋集』(濟州文化, 1990), 429면. : 李啓徵, 字慶運, 號二樂, 本古阜人, 奇蘆沙門人, 至行純嘿爲時所推. / 安達三, 字行五, 號小栢, 本竹山人, 奇蘆沙門人, 從師北學以道德行誼稱.
- 6) 金錫翼, 「耽羅人物考」, 『心齋集』(濟州文化, 1990), 429면. : 金義正, 字佑卿, 號海隱, 本金海人, 師事崔勉菴益鉉, 博學工詩, 庚寅啞仕參奉.
- 7) 金錫翼, 「破閑錄」, 『心齋集』(濟州文化, 1990), 289면. : 耽羅人文, 始發揮, 於高僕射維, 高平章兆基, …高判尹得宗, …吳進士泰稷, 金進士龍徵, 李梅溪漢震, 安小栢達三,

각하게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제주를 중심으로 한문학 연구는 너무도 미비한 것이 지금 현실이다. 본고는 위의 사항에 주목하면서 먼저 생애를 살펴보고, 간략하게나마 그의 시세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 한문학에 조그만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 생애와 시대인식

梅溪 李漢雨는 순조 23년(계미: 1823)에 제주 新村里에서 태어났고, 본관은 전주이다. 원래의 이름은 漢震이었지만, 족보를 만들 때에 避嫌하는 바가 있어 ‘震’을 ‘雨’로 바꾸었다. 그의 자는 次文이고 梅溪는 그가 스스로 붙인 號이다.

그는 전주 이씨 桂城君 파이다. 계성군의 이름은 恂인데 성종의 아들이다. 아들이 없어서 月山大君派 德豐君 愷의 아들 瑠를 양아들로 삼았는데, 이가 桂林君이다. 계림군은 明宗 乙巳土禍에 모함을 당하였다가 宣祖 丁丑年에 伸冤으로 복위되었다. 을사사화로 매계집안은 권력 밖으로 밀려난다. 그 후 인조반정으로 다시 懷恩君 德仁이 중앙정계로 진출하지만 沈器遠을 잘못 천거했다는 이유로 인조 甲申年에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사약을 받고 죽는다. 회은군의 아들인 진사 彭馨도 아버지를 따라서 제주도에 입도하게 되는데, 아버지인 회은군의 죽음을 계기로 제주에 정착하게 된다. 彭馨은 비록 司馬試에 합격했지만, 계속된 참화로 벼슬에 뜻을 두지 않았다. 입도 후에도 彭馨의 아들 嘉義大夫인 得春은 仁祖 甲子年에 原從功臣으로 忠勳府에 勅命을 내렸다고한다. 고조부의 이름은 秉完이고, 증조부는 澤輝이며, 조부의 이름은 聖薰, 아버지의 이름은 信九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다할 벼슬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는 김해 김씨이고 외할아버지 이름

은 德河였다.⁸⁾

매계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자랐다. 집안이 비록 중앙에서 밀려났지만 학문에 대한 열기는 식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는 마을에 서당을 열게 된다.⁹⁾

아아! 가군께서 분연히 학문에 뜻을 두시어, 처음으로 집에 글방을 열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도에게 봄과 여름에는 경작에 힘써 식물을 봉양하는 일을 받들게 하고, 겨울에는 공부하여 효도하고 어른을 섬기는 예의를 펴게 하였다...(중략)... 매양, 서늘한 가을과 눈 내리는 겨울 밤엔 거리에서 자주 책 읽는 소리를 듣게 되어, 이 마을이 제일의 문향으로 일컬어졌다.¹⁰⁾

이러한 집안 분위기는 매계가 어려서부터 학문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매계 부친의 성품은 학문을 좋아하여 신촌에 서당을 세웠고, 모친도 재물 유무에 구애받지 않고 손님 접대에 모자람이 없게 하고, 공부하고 도를 실행하는 선비를 후하게 대접했다고 한다.¹¹⁾ 매계 역시 어릴 적부터 경서와 역사서, 그 밖에 여러 학자들의 책을 접했고, 특히 서경을 좋아했다고 한다.¹²⁾ 그리고 ‘天文, 歷記, 山經 水誌, 律典, 兵書라도 통하지 않음이 없고, 학문의 쌓음이 넉넉하고 사용하여도 모자람이 없었다.’¹³⁾고 하니

8)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3면. : 蓋聞宜陵王子桂城君諱恂, 無育取, 德豐君諱愼, 子諱瑠後焉, 是爲桂林君. 明宗乙巳被誣謫, 宣祖丁丑仲復, 正陽君諱諱, 懷恩君諱德仁, 並始禍終仲, 三世遭遇, 何其感也. 懷恩君子進, 上彭馨, 始入海居焉. 嘉義諱得春, 以仁朝甲子原從臣策命勳府, 寔爲公十二世若十一世, 高祖諱秉完, 曾祖諱澤輝, 祖諱聖薰 考諱信九, 妣金海金氏, 父諱德河.

9) 『全州李氏世譜』, 卷二, 111쪽, 建塾興學, 於面洞, 慕尙之風, 愈久愈遠.

10) 『學徒契座日序』, 『梅溪先生文集』, 120면. : 猗, 家君慨然有志好學, 肇設家塾, 教授鄉里, 使其學徒, 春夏耕作, 供其奉養之職, 秋冬講誦, 申以孝悌之意, 數年載間, 鄉風不變, 七八歲兒, 皆知向學, 樵者負薪而誦, 耕者掛角而讀, 每於新涼之秋, 雪月之夜, 往往咿唔之聲, 相聞乎閭巷, 此村以第一文鄉稱焉.

11)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4면. : 妣亦承厚君子, 黽勉有無供客無關, 而知其爲文人行士, 則加厚焉.

12)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4면. : 舞象前, 已覽遍群經群史漢魏唐宋諸家書, 而於尙書, 如元凱左辭, 誦數過千遍, 例治功冷.

13)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6면. : 餘力卽, 稽古不懈, 雖天文歷紀山經, 水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독서의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것은 모두 집안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매계의 성품은 대단히 효성스러웠다. 어려서부터 마음을 다해 부모님의 뜻을 따랐고 자기 멋대로 일을 처리하지도 않았다. 명령이 있거나 없거나 거슬러 게으르지 않았으며 여유가 있거나 없거나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이웃과 마을에서 본 이들은 모두 효자라 하여 기대를 가졌다. 자라서는 글 잘하는 이름에 가려져 특별히 그의 효성을 칭찬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실제로는 집에서도 몸소 실천하여, 사람들이 주저하지 않고 ‘효자로다 민자건이여!’ 하는 말을 생각하면, 매계와 다름없다고 생각했으니¹⁴⁾ 그의 효성을 짐작할 만하다. 그의 집안은 여러 대 벼슬이 없었고, 이러한 집안 상황으로 인해 과거에 응시하게 된다. 당시 조선은 쇠퇴하는 시기였고, 각 분야에서 부패하고 있었다. 과거제도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비록 과거에 실패하기는 했지만, 현실에 대해 무감각한 것은 아니었다. 철종 13년(1862)인 壬戌年에는 진주민란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철종은 三政策問을 내렸고, 이에 응하는 각 지방의 三政疏가 올라 오게 된다. 진주 민란이 일어난 같은 해에 제주에서도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民擾가 발생한다. 철종 11년(1860) 3월에 암행어사 沈東臣이 鄭愚鉉 목사의 非違를 적발하고 파직시켰는데, 철종 13년(1862) 2월에 도입한 任憲大목사도 여전히 특정인의 청탁을 받아 부역과 잡세를 면제해 주고 그 부담을 농민들에게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이로 인해 姜悌儉 등이 시정을 요구하였고, 사건이 비화되면서 삼읍의 농민들이 성문을 부수고, 관영으로 난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¹⁵⁾ 『梅溪先生行狀』에서도 姜悌儉 사건에 대해 “壬戌年 백성들이 소요를 일으켰을 때 제주에서도 소요가 있었는데 더

誌律典兵書，靡不通念，故積之有餘，用之無乏。

14)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5면. : 蓋誠孝公素性也, 自幼少日, 盡心順旨, 食不先口, 事無由己, 無命不逆意, 無暇不離側, 隣里見者, 皆以孝童期待之, 及長, 文名擢之, 無稱孝者, 然其實, 則家庭躬行, 與文藝俱進, 而過之 … 중략 … 人無間言, 孝哉, 閔子騫, 想亦似此也否.

15) 김봉옥, 『제주통사』(제주문화, 1990), 182 - 183쪽.

욱 참혹해서, 백성들이 장차 살아날 길이 없었고 두려워 누구도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¹⁶⁾라고 그 참혹함을 기록하고 있다.

대저, 폐단은 갈수록 심해져 전에 비해 몇 갑절이나 되어 양은 헤아릴 수 없고 세금을 거두는 것도 정해진 한도가 없으니, 백성은 편안히 살지 못하고 많은 마을이 피폐해져 비게 되었습니다. 밭에 푸른 소나무가 늘어서 있어도 세금을 걷고, 전혀 수확이 없어도 거두며, 한 줌이나 한 묶음이나 함은 오직 간사한 아전의 붓끝에 맡겨집니다…(중략)…서울에 이르러 각 관청에 바칠 때나, 임금님께 드리는 지방의 공물을 들이고 내침에 이르러 담담하는 아전과 노비가 지나치게 거두니 정리로 주는 뇌물은 해마다 늘어 마침내 병통이 되었습니다.¹⁷⁾

매계의 「三政策」이다. 여기서 매계는 田賦의 폐단을 이야기하고 있다. 당시 세금의 기준은 토지였고, 토지 측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조선후기 기강이 문란해지면서 토지 측량도 들쭉날쭉 했고, 이러한 것은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들의 세금을 포탈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전략하고 만다. 또 뇌물이 성행하게 되어 당시 향간에 떠도는 말에 ‘올리는 것은 한 껌미요 뇌물이 한 짐’¹⁸⁾이란 말이 있을 정도였으니, 그 심각성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 밖에 군전이나, 환곡의 병폐를 지적한 곳에서도 그의 현실인식을 느낄 수 있고, 비교적 온건한 변화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느끼는 현실이 비록 희망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는 과거에 도전한다. 스물도 안 되어 과거장에서 명성을 얻었고, 단단히 짜여진 뛰어난 구절들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는데,¹⁹⁾ 이는 秋

16)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7면. : 嘗壬戌民擾時, 本州亦擾, 而尤酷慘, 民將不遂生, 而畏莫敢誰何.

17) 「三政策」, 『梅溪先生文集』, 145-146면. : 大抵結弊之愈往愈甚, 比前倍蓰者, 量無可巧, 斂無定限, 只以民不負居, 材多廢址, 田或青松之陳稅, 奈白地而徵, 一把一束, 惟恣奸吏筆端之弄, 隱結加結, 半作貪官囊中之物, 至於京司 各營上納之時, 御用供上, 進排之際, 所掌吏隸濫索, 情隨歲加年贈, 遂成痼癘.

18) 「三政策」, 『梅溪先生文集』, 146면. : 諺所謂 進上一串 人情一駄

19)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4면. : 例治功令, 未弱冠, 有場屋聲, 健篇傑句,

史 김정희와 제주 목사로 왔던 여러 선비들과의 교유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제주목사 중에서는 특히 목인배와의 시가 많이 보인다. 목인배는 철종 5년 12월에 목사로 부임하는데, 추사가 유배에 풀려 제주를 떠난 지 5년째 되던 해이며 매계가 30세 되던 때이다. 睦牧使의 생일잔치에서 지은 <敬次睦牧使仁培晬宴韻>²⁰⁾, 목사가 보인 운자를 보고 지었다는 <奉睦睦牧使示諸生韻>²¹⁾, 睦牧使의 선정을 찬양하면서 그와의 이별을 아쉬워하는 내용의 <奉睦睦牧使留別諸生韻> 二首²²⁾에서는 끈끈한 인간적인 정까지 느끼게 한다. 그리고 목 목사도 '남국의 북두태산'이라고 매계를 인정했다.²³⁾ 또, 목사들이 부임해 왔을 때 당시 제주를 대표하는 문인들과 교유를 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의 나이 23세 때에 부임한 목사 李宜湜과 瀛邱에서 지은 <三月旣望隨李牧使宜湜遊登瀛邱>²⁴⁾가 있는 것으로 보아, 梅溪가 당시에 벌써 제주의 대표적 문인으로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고, 睦牧使 때에는 이미 제주의 대표적인 文士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된 듯하다.

그가 이렇게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이 秋史와의 만남으로 배가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여러 번 지방 과거 시험에 붙었다는 것도²⁵⁾ 이 시기로 생각된다. 제주에서 여러 번 향시에 합격하고, 매계는 大科를 보기 위해서 서울로 상경하게 된다. 하지만, 8차례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국 낙방하고 귀향한다. 그 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그의 마음은 시에 잘 나타나 있다.

多時人傳誦者.

20) 『梅溪先生文集』, 54면.

21) 『梅溪先生文集』, 55면.

22) 『梅溪先生文集』, 7면.

23)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4면. : 承旨陸仁培, 來牧本州, 設程課上, 公之作, 每每巍選, 睦牧, 稱以南國山斗, 使不復編列於批抹中.

24) 『梅溪先生文集』, 3면.

25)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60면. : 公之言, 曰吾八航海, 屢發解.

III. 梅溪의 詩 世界

1. 科擧의 落榜과 葛藤

양반인 매계에게 과거 응시는 당연한 일이었고, 이는 어려워지는 집안을 위하고, 동시에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였다.

나는 여덟 차례 바다를 건넜다. 여러 차례 향시에 붙었으며, 얻고 얻음에 분주히 돌아 다닌 것은 아버이를 위하여 뜻을 굽힌 것이다. 또한 나라의 법도에 과거가 아니고는 선비가 나아갈 길이 없으니, 어찌 傲然하게 앉아서 스스로 높이며 과거를 보지 않고 명망을 기를 수 있겠는가! 오직 법도를 쫓아 스스로 힘을 다할 것이며, 얻고 잃음은 천명에 맡길 뿐이다.²⁶⁾

위 구절에서는 매계의 과거 응시 동기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첫째는 아버이를 위한 굽힘, 즉 집안의 요구이며, 둘째는 선비의 행동으로서 出處의 문제로, 세상에 나와 적극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이유로 그는 과거에 응시하게 된다. “오직 법도를 쫓아서 스스로 힘을 다할 것이나, 얻고 잃음은 천명에 맡길 뿐”이라는 구절에서는 주어진 결과에는 마음 두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매계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향시에서 합격한 그는 서울에 머물게 되는데, 타향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정서는 고향에 대한 향수이다.

長安未歸客	서울에 남겨진 나그네
對酒雨纖纖	술상을 대하니 부슬비 부슬부슬
綠水通深港	푸른 물결 깊은 항구로 통하건만
靑山擁短簾	푸른 산 짧은 처마 들렀구나

26)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60면. : 吾八航海, 屢發解, 奔走於得失之場者, 爲親屈也, 且國規非科擧, 士無進路, 豈合傲然, 自高廢, 擧養望哉. 惟循規自盡, 而得失則委命可也.

梧桐秋氣薄 오동나무 가을 기운에 얹어지고
 蟋蟀夜聲尖 귀뚜라미 소리 밤 되니 날카로워진다
 揮塵清談足 세속 먼지 털어내어 맑은 이야기 풍족하니
 晚風時動簾 저녁 바람 때맞춰 발을 흔드네²⁷⁾

위 시는 蘭谷 金亮洙와 서울에서 만나 화운하면서 지은 시이다. 蘭谷은 제주 조천 태생으로, 신촌과 조천은 매우 가까운 거리였으므로 蘭谷과 매계는 젊었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 이외에도 문집에서는 영주심경시를 비롯한 여러 시에서 난곡과의 친분이 확인되고 『蘭谷詩集』에서도 매계와의 교유가 확인된다.

이 시는 먼 타지에서 동향의 벗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향수를 달래고 있다. 거기에 부슬비가 내리고 그 비를 따라서 항구까지 그 상상이 커지지만, 푸른 산에 그 상상은 막히고 만다. 푸른 산에 막힌 그의 감정은 얹어진 가을기운, 날카로워진 귀뚜라미 소리에 잠시 흔들리지만, 함께하는 친구가 있기에 적극적이면서도 여유로운 자세를 지닌다. 어려운 가운데에도 희망을 느끼게 한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리 매력적이지 못했다. 그의 「三政策」에서는 과거제도의 개혁을 제시하고 있다.²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사뭇 아쉽지만, 당시 과거가 인재를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음은 매계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어쨌든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매계는 귀향을 결심하게 된다.

瀛洲客病漢陽城 영주 나그네 한양성에서 병들어

27) <與金友子明拈韻>, 『梅溪先生文集』, 6면.

28) 「三政策」, 『梅溪先生文集』, 150면. : 然而君道不可以獨運, 徒法不可以自行, 有在擇人以任之, 量能以授之, 以若虞夏盛際, 六府之允治, 庶積之咸熙, 曰四嶽, 曰十二牧, 申之以往欽哉. 今之爲方伯守令者, 果皆其人, 而一心對揚, 以殿下之心, 爲心, 則吾東, 其庶幾乎. 於三政, 何有. 臣伏讀聖策, 自子大夫, 止親覽焉. 臣雙擎百拜, 有以仰聖人救助之盛, 眷也. 臣既以得人, 爲揀弊之要, 而得入之道, 有一焉. 我朝既以科目取人, 自古名碩, 莫不自科目中出來, 近來科規蕩然, 士趨不端, 草野經綸之彥, 每多遺珠之歎. 人才之不逮於古, 良以是矣. 伏願 殿下嚴科規, 正士趨作成人才, 需用國器, 則惟茲三政, 不期正而自正矣.

賴得枯藤強起行 등나무 지팡이에 의지하여 애써 일어나네
 北斗星辰天上轉 북두성과 여러 별들이 하늘을 돌고
 南山雲霧曉來晴 남산을 두른 구름 아침이면 개이네
 材如燕石嗟無用 연석같은 재목이 애석해도 쓰이지 못하고
 氣似龍泉尚不平 용천검같은 기상도 오히려 평안하지 못하네
 試向春塘臺下去 춘당대 더듬어 보고 내려가려니
 杏花時節又清明 살구꽃 피는 청명의 절기로세.²⁹⁾

이 시는 서울에서 병을 얻었을 때 귀향을 결심하며 지은 시이다. 아픈 몸이지만 불안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누워 있지도 못하고 억지로 여기 저기 거닐고 있다. 북극성과 남산은 임금을 의미한다. 남산이 구름에 가리운 것은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무리로도 해석할 수 있고, 동시에 자신의 진가를 몰라준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런 감정은 燕石과 같은 훌륭한 석재가 쓰이지 않고, 龍泉劍 같은 뛰어난 검이 묻혀 있다는 표현으로 이어지며, 세상과의 부조화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불만도 잠시일 뿐 그는 귀향을 생각한다. 오랜 과거에서 지친 심신을 받아줄 곳은 꿈에도 그리는 고향이다. 하지만 과거에 실패한 귀향이기에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 과거를 보던 곳이었던 春塘臺를 더듬고 내려가는 모습에서는 과거에 합격하여 세상에 펼쳐 보고자 했던 자신의 의지를 접고, 다른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하는 아쉬움과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 버리지 못한 미련이 담겨 있다. 이 시에는 金敬璨이 奇進士와 明禮館을 찾아와서 위문하였다는 부제³⁰⁾가 있어 침울함을 더하고 있다.

五日過期十日期 닷 새 기한 넘으니 열흘이 기한일세
 期期不到到何時 매 기한에 이르지 않으니 언제 오려나
 水千里又山千里 물길 천리에 산길도 천리이니

29) <病中吟>, 『梅溪先生文集』, 38면.

30) 『梅溪先生文集』, 38면. 長城金敬璨, 素無面識, 聞此詩, 與奇進士, 數人來訪, 明禮館, 問病.

山亦難行水亦遲 산길도 넘기 힘들더니 물길마저 늦어지네 31)

위 시는 과거에 낙방한 매계가 제주로 가는 배를 기다리며 쓴 시이다. 고향으로 가는 배를 기다린다면 기다리는 마음조차 즐거울 듯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겨진 아쉬움과 허전함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너무도 지치다. 게다가 오일, 다시 십일 동안 바람을 기다려도 바람은 오지 않는다. ‘期期’라는 시어에는 기다림이, ‘물길 천리’, ‘산길 천리’, ‘산길도 넘기 힘들더니 물길마저 늦어지네.’라는 말에서는 그간 시인의 느낀 역정이 나타난다. 여기서 ‘亦’자는 자신의 역경을 겨우겨우 넘기면서 살아온 그의 모습과 앞으로의 삶 역시 순탄치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적으로 나타낸다.

여러 차례 향시에 뽑혔으나, 省試와 廷試에 뽑히지 못한 것은 천명이다. 바다를 여덟 번 건너서는 말하기를 ‘이같이 함은 아버지 뜻을 옹하여 이루어 함이나 天命이니 어찌하리오? 지금 집은 어려워지고 아버지는 늙었으니 돌아가서 봉양하며 자식의 직분을 다함만 같지 못하다.’라고 했다.³²⁾

위 글에 나타난 귀향의 동기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자신의 실패가 천명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한다는 것이다. 천명이란 하늘에서 주어진 명령 또는 부여된 것을 의미한다. 매계의 천명 인식은 자기 합리화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려는 매계 자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둘째 동기는 부모에 대한 자식의 직분을 다하기 위한 귀향이다. 과거에 낙방하여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것은 현재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그의 실질적인 귀향 원인이 과거 낙방이라는 점에서 다분히 수동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신이 원했던 형태의 귀향이 아니기에 그의 내면에는 항상 불안

31) <待舟>, 『梅溪先生文集』, 18면.

32) <梅溪先生行狀>, 『梅溪先生文集』, 155면. : 果參解額, 而其不中於省試廷試者命也. 航海凡八渡, 幡然曰, 爲此者, 應成親志, 奈命何. 今家貧親老, 不若歸養, 以盡吾子職.

한 요소가 자리한다. 제주로 돌아온 매계의 시에서는 자연에 귀의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려는 내용과 그 속에 잠재된 불안감이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

溪南白屋數重茅	시내 남쪽에 웅기종기 시골 초가집
城外青山十里郊	성문 밖엔 푸른 산까지 십리 들판
酒席風生新臘味	술자리 바람이 이니 납주 맛이 새롭고
梅窓春到去年梢	창가 매화 묵은 가지 끝엔 봄빛이 닿았네
志如良驥將登路	뜻은 천리마가 길을 떠나가는 듯한데
身似幽禽每擇巢	몸은 그윽한 새가 보금자리 고르듯 하네
獨坐看書多歲月	홀로 앉아 책 읽으며 많은 세월 보냈으나
出門還受世人嘲	문을 나서면 오히려 세상 조롱 받는구나 ³³⁾

이 시 역시 편안한 마음과 그 속에 내재된 시인의 갈등을 느끼게 한다. 전반부에서 시인의 눈에 비춰진 경치는 편안하기만 하다. 시내 남쪽에 아기자기하게 모여 있는 초가집, 그 집에 담긴 정겨운 풍경들, 다시 눈을 돌려 먼 산을 보면 그 푸른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다정하게 다가온다. 이러한 모습들은 주변 경치와 풍물에 대한 작가의 애착과 그 속에 존재하는 자연물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다. 고향의 따스함과 조금씩 찾아드는 봄기운, 매화가 피어 있는 술자리, 이 모두 즐거움을 더해주는 매개체이다.

이러한 흥겨움은 경련에서 뜻(志)과 몸(身)으로 나누어지면서 미묘한 갈등을 느끼게 한다. 술이 시인을 즐겁고 여유있게 할 것도 같지만, 그러지 못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이다. 뜻은 너른 광야를 달리는 장수와 같지만, 현실의 몸은 새가 보금자리를 고르듯 자기 주위를 빙빙 돌 뿐이다. 천리마를 타고 길을 떠나는 심사에 비해서 무척이나 뜻이 좁고 초라해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기에 마지막 연에서는 ‘獨坐看書’로 이어진다.

33) <感興>, 『梅溪先生文集』, 33면.

독서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동시에 본연의 자아를 찾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홀로 남아 책을 보며 여러 세월 지낸 뒤, 다시 세상에 나섰지만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다는 말은 여러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감정은 과거 낙방으로 인해 초라하고 자신 없는 자신의 모습에 주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끄러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으로 여기고, 시인이 먼저 세상과의 고리를 차단하고 있다.

2 修身意志와 現實觀照

매계가 처음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몸은 비록 자연 속에 있지만, 마음은 오히려 자연의 앞에 한없이 작아짐을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자연과 함께 하는 동안 그의 생활과 모습은 조금씩 바뀌어 간다.

一咏亭이란 영주의 많은 선비들이 시를 읊는 제일의 정자이다. 하늘과 땅으로 터를 삼고, 산과 물로 기둥과 정자를 삼고, 바람과 달로 문과 들창을 삼고, 안개와 노을로 담장을 삼고, 꽃과 나무로 뜰과 계단을 삼고, 네 계절을 맞고 보내며, 천고의 시간으로 손님과 주인을 삼으니, 눈과 비를 맞아도 퇴락하지 않고, 많은 세월을 흘렸으나 썩지 않는다. 오르려 해도 사다리가 없고, 우러르니 더욱 높아 오직 시 읊는 정취를 가진 이라야 이곳에 올라 놀리로다.³⁴⁾

위 글은 매계의 「一咏亭記」이다. 여기에서는 자연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을 담고 있다. 즉, 자연을 풍류의 대상으로만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정신에도 중요한 가치를 두었다. 또 일영정에서는 不惑의 나이로 제한하여 참여시키지 않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노래함이 지나치면 흥이

34) 「一咏亭記」, 『梅溪先生文集』, 118면. : 一咏亭者, 瀛洲多土, 吟咏之第一亭也. 以天地爲基址, 以山水爲楹榭, 以風月爲窓牖, 以煙霞爲墻壁, 以花卉爲庭砌, 以四時爲送迎, 以千古爲賓主, 經雨雪而不頽, 閱歲月而不朽, 登者無梯, 仰者彌高, 惟有一咏之志趣者, 可以登於斯, 遊於斯乎.

홀어짐에 치닫고, 술잔이 도를 넘으면 거짓된 말에 흐르게 된다고, 그러므로 나이 不惑에 이르지 못한 이는 참여치 못하게 하는 것이요.”³⁵⁾라고 하여 풍류를 즐기면서도 방탕함을 막으려는 중도적인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연을 그저 산과 물이라는 존재로 읽는 것이 아니라, 道의 구현체로 생각하고 자연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려는 철학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과 함께 하면서도 방탕하게 흐르는 점을 경계하고, 자신의 심성을 돌아보기 위해서 강조되는 것은 본연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고 이러한 것을 알기 위해 항상 학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강조되었다. 매계의 경우도 자신의 시련을 극복하기 위한 실마리를 학문에 대한 관심, 즉 독서에서 찾는다. 독서는 자신을 냉철히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해 준다.

매계는 천명과 효도라는 명분으로 제주로 내려왔지만, 실제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기에 귀향 초기에는 상당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타난다. 하지만, 점차 자연에 동화되면서 자신의 시련을 극복하고, 자아 실현의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된다.

雪後園林日影疎 눈 내린 과원에 햇빛 얇은데
海山靑到數椽廬 한라산 푸른 빛 초가 서까래에 닿누나.
胸中自是無凡想 마음엔 세속 욕심 없으리니
坐對晴窓百本書 창가에서 백 권 책을 대하노라.³⁶⁾

전반부에서는 눈이 내린 자연의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눈이 온 뒤에 검은 먹구름 사이로 조금씩 새어 나오는 햇빛은 시련을 겪은 그에게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자신의 욕심으로 들이닥쳤던 눈보라도 이제 어

35) 「一咏亭記」, 『梅溪先生文集』, 118면. : 客有問曰, 今用耆英會故事, 不許年少者, 何也. 笑而麾之, 曰過乎咏, 則馳於放浪, 濫乎觴, 則流於虛誕, 故年未滿不惑者, 所以不得預於此也.

36) <偶吟>, 『梅溪先生文集』, 9면.

느닷 조금씩 개어 햇별이 비치고, 이러한 마음은 푸르른 한라산이 자신의 집에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푸르름은 시인의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이제 갓빛 구름이 걷히고 보니 자신에게도 푸르른 희망과 같은 것이 생겼다는 일종의 생명력인 것이다. 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희망은 凡想이 없어진다는 표현으로 나타난다. 범상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위 시의 경우 자신을 얽매어 온 헛된 욕심과 같은 것이다. 벼슬 길에 대한 욕심과 미련들이 없어지면서 눈이 온 뒤에 깨끗한 풍경처럼 시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에 동화된다. 모든 과정을 거친 그의 마음은 고요한 모습을 되찾게 된다. 이러한 고요함은 마지막 구에서 책을 읽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제 그가 읽는 책은 과거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구속과 속박의 책이 아닌 자신에게 주어진 자연 본연의 모습을 향한 그의 열정과 지금까지의 시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

去年白雪今年白 지난해 회었던 눈 올해도 회니,
 我白三年彼白同 내 머리 세기 삼 년에 눈빛과 같아졌네.
 彼白雖銷我猶白 저 눈은 녹아도 내 머리는 여전히 회니,
 銷天銷地到無窮 세상을 마칠 때까지 한결같이 회겠네.³⁷⁾

위 시는 눈이라는 자연물과 자신의 하얀 머리를 비교하면서 시인의 고매하고 깨끗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눈이라는 자연은 자신의 하얀 머리를 통해 자신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된다. 承句에서의 ‘我白三年’은 자신의 머리가 실제로 세어진 햇수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깨끗해짐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이해된다. 후반부에서는 불변적인 자연과 가변적인 인간의 모습이 오히려 그 위치가 뒤바뀌어 나타난다. 이제 눈은 날씨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가변적인 존재로 자신의 흰빛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존재하고, 더 나아가 ‘無窮’의 경지에 이른다. ‘無窮’은 자신의 신념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인간이 비록 유한한 존재이지

37) <感雪>, 『梅溪先生文集』, 24면.

만, 자연과 함께 숨을 쉬고 변하지 않는 모습을 느낄 수 있기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한 것이다.

이 시는 객관적으로 느끼는 자연과 자신의 흰 머리 빛에서 공통점을 착안하여 자신의 수신의지를 詩化하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자연을 닮아가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오히려 날씨의 변화에 모습을 달리하는 눈을 포착하고는 자신의 하얀 빛 즉, 그의 의지와 신념은 절대 변할 수 없음을 극대화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隔溪晴雪小扉開 시냇가에 눈이 개어 사립문 열어 보았네
爲許親朋乘興來 친한 벗이 흥취 더불어 왔으면 했지
夜深詩思清人骨 밤 깊으니 詩思가 일어 속마져 맑아지니
獨對梅花酒一盃 홀로 매화 대하여 한 잔 술 기울이노라³⁸⁾

위 시는 눈 내리는 밤의 경치를 보면서 자신의 閑情을 노래하고 있다. 눈이 갠 날씨의 시인의 맑아진 마음이며 문을 여는 행동은 개방적이며 적극적인 마음을 나타낸다. 이렇게 세상에 대해 개방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시인 자신이 평온하면서도 여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날씨가 점차 개어 시냇가의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자연의 기운이 생동하려 할 때, 시인은 자연의 흥취를 느낀다. 자연의 흥취에 젖어 그는 함께 할 친구를 생각하게 되고, 비록 야심한 시간이지만, 사립문을 열어 놓았던 것이다. 밤이 깊어 찾아오는 친구는 없지만 시인의 즐거움은 끝이 없다.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즐기는 자연의 흥취는 詩思로 연결된다. 시에 대한 생각은 시인의 마음을 더욱 맑게 하고, 또 다른 세계로 그는 몰입한다. 즐거운 마음은 시를 지어도 멈출 수가 없다. 시를 지어도 표현 못한 마음은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혼자서 아니다. 바로 매화를 벗 삼아 마시는 술이기 때문이다. 자연을 벗하면서 술 마시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자연과 별개가 아니다. 자연과 함께 한 덩이로

38) <雪夜>, 『梅溪先生文集』, 16면.

어울려 있는 시인의 푸근한 감정과 여유를 느끼게 한다.

4. 濟州自然의 韻文化

매계는 자연을 통해서 자신 본연의 모습을 찾아간다. 그렇다면, 그가 느낀 고향은 어떤 모습일까? 『心齋集』의 「海上逸史」에서는 제주의 아름다운 지역과 풍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경치에 얽힌 시 약간편을 소개³⁹⁾하고 있고, 吳文福은 「瀛洲十景詩小考」에서 자신이 확인한 지역과 이 지역에 남겨진 시문들의 작자들을 소개하고 있다.⁴⁰⁾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렇게 제주 자연에 대해 품제한 것일까? 자연에 대한 인간의 표현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언제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이익태 목사의 십경이 『知瀛錄』에서 확인된다. 이후 瓶窩 李衡祥(숙종 壬午: 1702년 도임), 李禮延(순조 庚寅: 1830 도임), 凝窩 李源祚(헌종 辛丑: 1841 도임) 등이 다시 品題한다. 이형상과 이례연의 시는 간략하지만,⁴¹⁾ 李源祚는 제주 자연을 주제로 품제한 시가 많은데 그에 이르러서 현재의 瀛洲十景과 거의 비슷해진다.⁴²⁾

39) 『心齋集』에서는 漢拏山, 城山(성산일출봉), 牛島, 虎島, 天池淵, 山房(산방산), 天帝淵, 松岳山, 財巖, 都近川, 斗泉, 龍淵, 鯨窟(사라봉 지역), 毛興穴(삼성혈), 高得宗舊居, 嘉樂泉, 達觀台, 糊磨石, 判書井, 金寧窟, 白鹿潭, 方巖, 靈室, 瀛邱, 貫石, 鷹巖, 老人星, 上子墓, 東濟院泉, 大沙浦, 飛龍池, 山房德, 橋袖, 燕覆子, 馬屯 를 소개하고 있다.

40) 『제주도』 90호, 1991. 여기에서 소개된 경치와 시인은 다음과 같다.
漢拏山: 權近, 金綴, 金尙憲, 林梯, 南九明, 李元鎮, 李慶億 / 白鹿潭: 金綴, 李源祚, 李翼 / 靈谷: 金綴 / 城山: 金尙憲, 林梯, 李衡祥 / 牛島: 金淨, 林梯 / 正房淵: 李衡祥, 金壽翼 / 天池淵: 金尙憲, 李元鎮 / 山房山: 金尙憲, 李元鎮 / 松岳山: 金尙憲 / 都近川: 李元鎮, 金尙憲 / 龍淵: 林梯, 金尙憲 / 龍頭巖: 朴亨秀 / 瀛邱: 洪重徵, 趙觀彬, 金永綬 / 馬屯: 金尙憲 / 橋袖: 金聲久, 金淨, 趙貞喆, 林梯 / 長儿湫: 南九明

41) 李衡祥은 숙종 임오년에 제주 목사로 부임했는데 漢拏彩雲, 禾北齊景, 金寧村樹, 平代渚烟, 魚燈晚帆, 牛島曙靄, 朝天春浪, 細花霜月의 八景을 품제하고 읍시 三首를 읊는다. 李禮延은 杵歌, 畚水, 屯馬 등 民物을 품제 하였지만 제주의 경치를 읊은 것은 많지 않다.

42) 吳文福, 「瀛洲十景詩小考」, (제주도 90호, 1991).

擬窩의 영주십경시는 칠언절구 10편으로 지어졌다. 원제는 <瀛洲十景題畫屏>인데, 瀛洲賞花, 正房瀑布, 橋林霜顛, 鹿潭雪景, 城山出日, 紗峰落照, 大藪牧馬, 山浦釣魚, 山房窟寺, 靈室奇巖의 순서로 되어 있다. 擬窩의 영주십경시는 이름, 차례, 시의 형식이 다르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의 것과 거의 같다. 제목에서 보듯이 擬窩의 영주십경시는 十幅의 屏風에 題贊한 시이다. 이 병풍은 발문도 없어 그려진 내력을 알 수 없지만, 제주도의 열 곳 경치를 그릴 정도라면 이 열 곳이 당시에 이미 제주도의 대표적인 명소로 인식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시 제목에 있어서도 차례는 다르지만 장소는 다름이 없고 對景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지만 시 성격에 있어서 아름다운 경치를 실제로 느꼈다기보다는 병풍의 경치를 보고 시를 지어서 와유산수적인 성격이 강하고, 경치묘사 부분도 매계 시에 비해 간략하다. 영주십경의 제목과 차례는 제주 사람인 매계에 이르러서 다시 정해지고 전해진다.⁴³⁾

십경이라 불리는 것은 오래된 것이 아니라 근대의 것이다. 근세의 선배 李漢震이 고을 안의 경치 좋은 곳을 가려서 십경으로 나누고 거기에다 읍시를 지어 불러 아름다운 경치를 나타내니 이로부터 이름난 승지가 되었다. 劉淡, 金亮洙, 李容植, 金昌鉉, 金桂斗, 金義正과 같은 여러 선비들이 그의 시에 화답하여, 이로부터 온 나라에 향기로운 이름이 퍼지고 곧 호평을 받았다. 지금의 안목으로 논할 것 같으면 뽑아 내어 다시 의론할 곳이 없지 않으나, 시인이 한때의 흥취를 일으켜 한 지방의 아름다운 곳을 소개한 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겠는가? 이 섬은 넓은 바다에 버티어 서서 삼신산의 하나라고 일컬어 왔다. 그 가운데 기이한 경치와 아름다운 구역이 수십 곳 뿐만은 아닌데, 다만 바다 밖에 치우쳐 있어 그 아름다움을 아는 이가 없다. 만약 大賢이 큰 붓을 빌려 그 숨씨를 발휘하였다면 무이구곡이나 소상팔경이 이보다 나올 수 있겠는가?⁴⁴⁾

43) 문집에는 <敬次李牧使源祚視諸生韻>('梅溪先生文集', 27면)이라는 시도 있어 梅溪가 擬窩의 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44) 金錫翼, 「海上逸史」, 『心齋集』(濟州文化, 1990), 260면. : 按十景之稱, 非古而近矣. 近世先輩李漢震, 收拾一州勝概, 分爲十景, 皆首唱四韻, 以證之. 於是時名勝, 如劉

위 글에서는 이원조의 영주십경시를 비롯한 그 동안의 내력이 생략되었지만, 梅溪에 의한 영주십경 설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원조가 목사로 제주도에 부임한 것은 梅溪의 나이 십대 후반이기 때문에 이원조 목사의 시를 영주십경시의 효시로 삼아야 할 것이지만, 心齋는 梅溪의 것을 시작으로 삼고 있다. 이것은 凝窩의 시가 병풍을 보며 지은 것이고, 또한 凝窩의 시에 화운한 작품이 없었던 반면, 매계의 시는 직접 느낀 영주십경의 경치를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제주 및 본토의 여러 문인들도 그의 시에 화운했고 이로 인해 영주십경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⁴⁵⁾ 본토 사람과의 잦은 교류로 인해 영주십경과 영주십경시는 더욱 넓게 알려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心齋 역시 영주십경을 널리 알리게 된 것이 매계의 영주십경시이므로 이를 효시로 삼고 있다. 또한 위의 글에서는 제주의 아름다운 경치를 온 나라에 알리려는 모습도 엿보인다. 또 “지금의 안목으로 논할 것 같으면 뽑아 내어 다시 의론할 곳이 없지 아니하다.”라 하여 다소 유감을 나타내고 새로운 품제는 大賢鉅筆에 넘기는 겸손을 보였다.

구성면에서 보면 매계의 영주십경은 일월, 사시, 제주의 경치, 제주의 풍물 순서로 되어 있다. 凝窩의 시가 사시, 일월, 풍물, 경치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보다 짜임새 있고, 안정된 느낌을 준다. 매계의 <瀛洲十景後>에서는 영주십경시의 창작동기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다.

詩成十景景多疑 승경을 헤아려서 십경시를 지었지만
 只畫葫蘆未畫奇 다만 호리병을 그렸을 뿐 기경은 못 그렸네.
 奇在世人難見處 기이한 모습 세상 사람들 보기 어려운 경치러니
 人稱別景畫於詩 사람들이 별경이라 하는 걸 시로 그렸네.⁴⁶⁾

淡·金亮洙·李容植·金昌鉉·金桂斗·金義正諸公，繼以和之。自此聲播中外，遂得好評，而以今之眼日論之，不無選擇之可議處也。然是認時之托與紹介一方之形勝，夫豈偶然哉。本島砥柱大海，世所稱三神山之一也。其間奇景勝道，不啻十數計，徒以僻在海外，世無由以知其勝者，若得人賢鉅筆，一徑發揮，則雖武夷之九曲，瀟湘八景，何以加此。

45) 율하와 양암의 경우가 그렇다. <送李栗下歸金陵>, 『梅溪先生文集』, 67면. / <上巳後一日廬劉襄庵遊楸旨>, 『梅溪先生文集』, 7면.

46) <題瀛洲十景後>, 『梅溪先生文集』, 97면.

위 시에서는 제주의 심경을 고르고 이를 감상하여 시를 짓기는 하였지만, 그 겹대기만을 그린 듯하다는 겸손함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 자연에 대한 긍지가 나타나 있다. 이러한 긍지는 제주 사람이 제주의 경치에 대해 읊고 노래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가치를 지닌다. 위 시에서는 제주가 다른 지방과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유람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를 통해 제주의 경치를 알리고 싶어하는 마음 또한 쉽게 읽을 수 있다. 이러한 모습은 제주의 시인(47)은 물론 다른 지역 사람들의 시에도 나타나고(48) 매계의 제주 자연에 대한 애착과 긍지를 알 만하다. 또한, 이 시에서는 영주십경이 자신이 선별하여 독창적으로 시를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별경이라고 하는 것을 시로 그렸네.”라고 하여 예전부터 아름답다고 일컬어진 경치를 매계 자신이 두루 편람하여 정리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매계가 영주십경에 대해 품제한 후에 계속하여 다른 시인들의 시가 지어진다.(49) 그의 영주십경시 한 편을 살펴보자.

兩兩輕槎出釣魚 가벼운 뚝배기 떼는 짝지어 고기 잡으러 가는데
 海天一色鏡中虛 바다는 하늘을 거울로 비춘 듯 하네.
 落花飛絮春和後 꽃 지며 버들 솜 나는 봄철에
 綠水青山雨歇初 비 방금 그치니 물 맑고 산도 푸르다.
 何意煙雲隨往返 구름은 무슨 일로 따라 오가는가?
 多情鷗鷺忘親疎 다정한 갈매기는 친소를 잊었구나.
 如今此景輸高手 지금의 이 경치를 좋은 솜씨에 맡긴다면
 應作人間未見書 응당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글일 것을(50)

47)) 『梅溪先生文集』, 97면. 海隱의 시 중 ‘吾州十景不須疑 歷歷看過絕絕奇’라는 구절이 보인다.

48) 栗下, 汝範, 襄庵의 시에서 보인다.

49) 石湖 高永昕의 영주십경시가 『諸家吟咏集』에 전하고, 화운시는 아니지만 曹名窩(名未詳), 吳毅淸, 愼花庵 등의 시가 같이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 『李在守實記』(李順玉, 『李在守實記』(中島文華堂, 1932))에서 가사의 형식으로 <瀛洲十景歌>가 전해지고 있다.

50) <山浦釣魚>, 『梅溪先生文集』, 91면.

매계의 제주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긍정적이다. 기존 來島한 문인들이 제주를 아주 척박한 곳으로 논한 것과는 너무도 상반된 양상인 것이다. 기존 내도문인들의 경우 제주의 척박한 자연을 개척하고 목숨을 건 고기잡이, 여자들까지 물질을 하면서 삶을 일구어 나가야 하는 것 등 제주도 백성들의 삶을 詩化하고 있다.⁵¹⁾ 매계 산문경우도 거친 바다와 척박한 토지를 일구면서 살아가는 제주인의 삶의 모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⁵²⁾ 하지만, 시의 경우는 제주도민들의 삶에 대한 시는 <探藻>⁵³⁾ 한 편뿐이다. 이 시도 고기잡고 농사짓는 모습을 그리고 있지만, 역시 제주의 척박한 환경이라기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면 수확 또한 많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강조된다. 그의 영주십경시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확인된다. 이것은 그가 제주인으로 제주의 경치를 읊으면서 자신의 갈등을 극복하였음은 물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이며, 특히 영주십경시의 경우는 외부에 제주의 비경을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긍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매계가 제주의 자연을 보고 영주십경시를 품체할 수 있었던 것은 과거를 보면서 느꼈던 진경산수가 가장 컸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추사와의 교류도 일정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된다.

IV. 나오면서

지금까지 梅溪 李漢雨의 시에 대해서 생애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매계가 살았던 19세기는 밖으로 서구 열강들이 동양 진출을 모색

51) 남구명의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金永吉, <南九明의 生涯와 文學世界>,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88-92쪽.

52) 「鄭牧使祭海神壇文」, 「貢馬差員祭海神文」, 「山川壇祈雨祭文」, 「有蟲災祭社土文」, 「里社醮祭文」, 「邊雅之協衣冠葬時其大親慰安祭文」에서 이런 성격이 보인다.

53) 『梅溪先生文集』, 11면.

하였고 안으로는 나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三政이 무너지면서 국가의 기강이 문란해진 시기이다.

매계의 집안은 비록 중앙에서 밀려난 집안이었지만, 집안의 요구와 개인적 이상의 실현을 위해 과거에 도전한다. 여러 차례 향시에 합격하며 주위의 인정은 받았지만, 대과에는 합격하지 못하고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온다.

귀향하기 전 그리고 귀향한 직후 그의 시는 갈등과 실망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과거합격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기에 그만큼의 실망감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심적인 시련의 극복은 독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차츰 평온한 마음을 되찾고 주위를 관조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 자연에 대한 인식이 영주십경시로 표현되었다. 매계의 영주십경시는 이원조의 <瀛洲十景題畫屏>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와유산수를 실경산수로 한 차원 올린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이면에는 과거시험을 보면서 느꼈을 진경산수와 추사와의 간접적인 영향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매계의 문학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계 전후의 제주 문학의 연결 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이러한 연구가 미비해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지금까지 제주 한문학에 대해서 따로 논의된 것은 없다. 이러한 것은 자료의 부족함에도 기인하지만, 지역 문학에 대한 우리들의 무관심이 더욱 큰 것이다. 지방 문학의 연속성이나, 지방의 정신을 되살리는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매계를 제외한 제주도 문인에 대한 연구도 역시 흥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핵심어: 매계, 이한우, 추사, 제주도, 영주십경

<참고문헌>

高永昕, 『石湖吟咏集』, 필사본, 연대미상.

- 金錫翼, 『心齋集』, 濟州文化, 1990.
- 金亮洙, 『蘭谷詩集』,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 소장.
- 金舜衡, 『濃隱詩集』, 필사본, 연대 미상,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 소장.
- 金熙敦, 『水隱詩集』, 필사본, 연대 미상,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 소장.
- 李源祚, 『耽羅錄』, 탐라문화연구총서(3), 1989.
- , 『凝窩先生文集』, 한국역대문집총서, 한국문집편찬위원회, 경인문화사, 1991.
- 李漢雨, 『梅溪先生文集』, 필사본.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 소장.
- 『瀛洲十景詩』, 필사본,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 소장, 1906.
- 『諸家吟咏集』, 필사본, 제주대학교 향토자료실 소장, 1907.
- 『全州李氏世譜』, 卷二 .
- 강성능, 「冲庵 金淨의 海島錄 研究」, 제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고정우, 「桐溪 鄭蘊의 流配漢詩 研究」, 제주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6.
- 김영길, 「南九明의 生涯와 文學世界」,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김영화, 『변방인의 세계』,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8.
- 소재영, 「漢文學과 濟州文學」, 『탐라문화』 15호, 1995.
- 양순필, 「朝鮮朝 流配文學研究 - 제주도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2.
- 양순필, 『濟州流配文學研究』, 제주문화, 1992.
- 오문복, 「瀛洲十景 小考」, 『제주도』 90호, 1991.
- 오문복 편, 『瀛洲風雅』, 제주문화, 1989.
- 오문복 편, 『瀛洲十景』, 제주문화, 2004.
- 「濟州道 典籍類綜合調査報告」, 『탐라문화』 3호, 1983.

<Abstract>

The Poetic Literature of Mae-gae Lee, Han-woo

Kim Sae-mi-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poetic world of Mae-gae Lee, Han-woo born in Sin-Chon, Cheju do. I could recognized that the poetry of Mae-gae became different in character at the point of time when he failed to the national public officials examination. The first paragraph was the conflicting cares of the failure in the examination, and the second and the third paragraphs were the aspect of the conquest of these conflicts. The last fourth paragraph was the interesting in the nature of Che-ju, and I could understand as the same context, since it was his affection for the circumstances.

- Key Words: Mae-gae Lee, Han-woo, Choo-sa, Cheju do, 10 beauties of Jeju